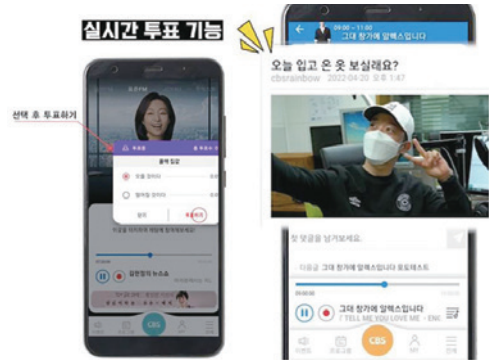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 에스빠놀' 스페인어 온라인채널 론칭



아리랑국제방송은 유럽 및 중남미 21개국 약 5억 명의 스페인어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스페인어 온라인채널 'Arirang Español(아리랑 에스빠놀)'을 론칭했다. 아리랑TV에서는 중남미 지역 한류 문화 전파 및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멕시코, 페루 등의 국가들과 한류 콘서트 개최 및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해왔으며, 현재 중남미 17개국의 케이블TV, IPTV 등 80여 개 현지 플랫폼 약 786만 가구에 아리랑월드 영어 채널을 방영 중이다. '아리랑 에스빠놀' 채널은 유튜브 외에 콜롬비아, 벨리즈 OTT 플랫폼에도 서비스되고 있으며 스페인 등 유럽 디지털TV 플랫폼에도 배급할 계획이다. 또한 스페인어 채널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어, 아랍어 등 다언어 온라인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CBS 레인보우 5.0 앱 개편



5월 11일, CBS가 레인보우 라디오 스트리밍 앱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레인보우 5.0'을 출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진행자와 청취자 사이의 소통 창구를 확장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프로그램 홈'에서는 제작진의 게시글을 확인하거나 사연 및 곡 신청을 할 수 있고, 출석 체크가 가능하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방송 시작 시각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 중 '실시간 투표' 기능과 청취자에게 보내는 실시간 메시지 'NEW 기능', 생방송 중 놓친 부분으로 돌아가 듣는 '타임머신' 기능도 방송사 앱 최초로 선보였다.

EBS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국제협력 논의



을 맺은 뒤 베트남 최초 교육방송사인 VTV7을 개국해 EBS 시스템을 베트남에 수출했다. 현재는 캄보디아에 EBS 교육방송 모델을 적용 중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 대통령이 5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EBS를 방문해 방송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제협력을 논의했다. EBS 주요 방송시설과 이더닝 스튜디오를 돌아본 투아데라 대통령은 "EBS 플랫폼을 중아공 환경에 맞게 적용해 아이들에게 고른 교육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EBS는 2014년 베트남과 업무협약(MOU)

YTN

1 스튜디오 공개



YTN 1 스튜디오 세트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기존의 세트를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롭게 구성한 스튜디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된다.

KT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서 선두 굳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지난해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료방송 총 가입자수는 3,645만 9,267명으로 파악됐다. 사업자별로는 △KT 844만 6,881명 △SK브로드밴드(IPTV) 612만 6,940명 △LG유플러스 531만 7,377명 △LG헬로비전 389만 8,331명 △KT스카이라이프 318만 2,855명 △SK브로드밴드(SO) 305만 2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HCN을 인수한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HCN) 가입자 수는 1,268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3.68%포인트(p) 늘어난 35.58%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 공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질적 지원과 방송사·제작사의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위해 '2022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 방송콘텐츠를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해외 사업자와 공동 제작한 콘텐츠 중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 말까지의 기간에 국내 또는 해외 방송사에 방영 실적이 있는 방송콘텐츠이다.

OBS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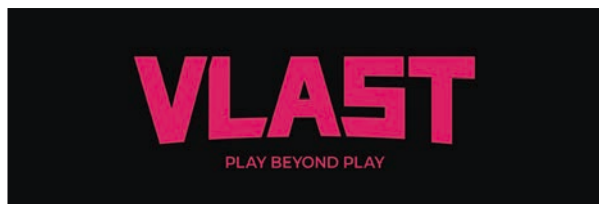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99.9MHz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OBS 경인TV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99.9MHz) 사업자로 OBS

를 최종 선정한 데 대해 “조기 개국으로 OBS를 지지 성원해 준 경기·인천지역 청취자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OBS는 경기라디오 개국 시점을 내년 2월을 목표로 새 방송 설립을 위해 만 2년 넘게 고통을 인내해 온 옛 경기방송 직원들을 우선 채용해 조기 개국을 위한 라디오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MBC

사내벤처 1기 ‘블래스트’, MBC와 IPX로부터 투자 유치



MBC 사내벤처 1기로 출발한 버추얼 캐릭터 스타트업 ‘블래스트’가 MBC와 IPX(구 라인프렌즈)로부터 24억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블래스트’는 그동안 라인프렌즈 오리지널 캐릭터, BT21, TRUZ, WADE 등 IPX의 다양한 글로벌 인기 캐릭터 IP를 활용해 메타버스향의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바 있으며,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런칭할 예정이다. 또한 ‘블래스트’는 게임엔진을 영상 제작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AI 캐릭터 개발을 목표로 구글의 미디어파이프 플랫폼을 이용한 모션 캡처 솔루션, 시연자 없이 스스로 대답하는 AI 캐릭터 등의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Digital UK와 차세대방송 관련 현안 논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주요 방송사(KBS, MBC)는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한국을 방문한 Digital UK(이하 DUK) 기술진과 만나 차세대방송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의 참석자로는 DUK에서 Jonathan Thompson CEO, Orphues Warr CTO를 포함한 8명과 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집행부 5명, 김정덕 KBS 미디어기술연구소장 등 KBS 기술진 5명, 이희석 MBC 기술인프라 국장 등 기술진 2명, 최종성 LG전자 TV 선행개발 전략파트장을 포함한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DUK는 영국의 공영방송국인 BBC, ITV, Channel4, Channel 5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영국에서 2015년부터 Freeview Play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국 최대 TV Platform인 Freeview 지상파 방송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Freesat (무료 위성방송)을 합병하였으며, DUK는 방송국들과 함께 미래TV Platform를 준비하고 시청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Next Generation Platform(NGP)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는 먼저, DUK 측에서 기관 소개와 NGP 관련 발표를 진행하였고,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KBS에서 UHD 방송 및 최근 시행 중인 UHD 특화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며, 다채널 및 모바일 방송과 양방향 IBB(Integrated Broadcast Broadband) 부가서비스의 특징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연합회에서는 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 미디어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하 연합회장은 DUK와의 자리에서 “DUK의 방문을 환영하며,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시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상파방송에 대해 기술 및 서비스 공유를 통해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의 관계를 가질 것’을 약속했다.

방송기술교육원, '차세대 라디오 방송기술 트렌드' 교육 안내



1. 교육일정

- 교육일정 : 2022.6.14.(화) ~ 16.(목), 총 3일
- 교육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 20명
- 교육장소 :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2. 접수방법

- 5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3. 기타

- 교육비 : 무료
- 담당자 : 강민정 차장, 민서진 차장
- 문의사항 : 02-3219-5640~1 / bea@kobeta.com

일정	시간	강사	주요 교육 내용
1일차 6/14(화)	13:40~14:00	방송기술교육원	• 교육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4:00~16:00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기획부 부장	• 국내외 라디오 현황과 이해, 진단 • 라디오 정책 현실과 개선 방향
	16:00~18:00	한인배 KBS 라디오기술국 국장	• 스트리밍 서비스 • 고품질 라디오 서비스의 필요성
2일차 6/15(수)	10:00~12:00	박상규 ALgruppe 대표	• 입체음향 이론과 적용
	12:00~13:30	점심식사	
	13:30~15:30	이진희 KBS 라디오편성기획국 PD	• 라디오의 플랫폼 변화와 업계의 대응 • 오디오 콘텐츠 시장변화와 가능성 • 라디오 제작진과 기술인의 접점
	15:30~17:30	정순욱 XPERI Automotive FAE 부장	• 인밴드 글로벌 표준 HD Radio 소개 • 커넥티드카 최적의 라디오와 결합하는 Connected Radio 소개
3일차 6/16(목)	10:00~12:00	임재윤 MBC 라디오본부 오디오전략파트장	• 글로벌 라디오 업계의 SaaS 트렌드 • 카인포테인먼트, 제조사들의 접근법 들여다보기 • 진짜 디지털의 기로에 선 국내 음성광고 • 설문 조사는 이제 그만, 청취량 측정의 표준을 만들 시점
	12:00~13:30	점심식사	
	13:30~15:30	장상원 CBS 정보네트워크부 차장	• 컴퓨팅 발전에 따른 미디어 • 소스 코덱의 발전과 방송사 역할
	15:30~17:30	김태섭 SBS 라디오기술팀 차장	• SBS 라디오 제작 시설 / 시스템 소개 • SBS 라디오 스튜디오 견학
		나경록 CBS 제작기술부 차장	• CBS 라디오 제작 및 송출 워크플로우 소개 및 견학
	17:30~17:40	방송기술교육원	• 설문 조사 및 종료